

법인세 14조 등 올 세수 16조 덜 걷힐 듯... '코로나 쇼크'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여건진단'

세수 전망 5.7% 줄어든 276.7조
올 법인세 수입 6년만에 감소세
부가가치세·관세수입 하락 예상
중부세·근로소득세는 더 걷힐 듯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으로 올해 세수가 전년 대비 16조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기업 경영 악화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하면서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 위기별 세입 흐름 특징으로 살펴본 코로나19 위기별 세입 여건 진단' 보고서에 따

면, 올해 국세수입은 작년 실적(293조 5000억원)보다 16조 7000억원(-5.7%) 감소한 276조 7000억원에 그칠 전망이

다. 이는 정부 예상치보다 3조원 적은 규모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92조원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국세수입 전망치를 291조 2000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3차 추경안 편성 과정에서 279조 7000억원으로 한 차례 더 수정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 예상보다 더 비관적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수입 감소로 올해 법인세가 전년 실적(72조 2000억원)보다 13조 9000억원(-19.3%)이나 감소한 58조 3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예상보다 2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이 같은 예측대로 된다면 올해 법인세 수입은 2014년 이후 6년 만에 감소세

로 돌아서게 된다. 전년도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특성상 내년도 세수 전망도 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70조 8000억원보다 7조 1000억원 줄어 63조 7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 예상보다 9000억원 적은 수준이다. 또 주요국 경제봉쇄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관세도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한 7조 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한 87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세수 감소가 전망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은 293조 5000억원으로 세

입예산보다 1조 3000억원 감소하면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 2000억원으로 전년(139조 5000억원)보다 21조 3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분납기한 변동 등을 고려해도 10조 7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경제 위기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 여건의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회복 속도도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 충격으로 확산할 경우 올해 세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자산 관련 세수가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국인 WTO 사무총장 나올까... 유명희 등 8명 출사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韓, 세번째 도전... '중견국 지위' 공략
美·中·유럽 중립적 역할 등 강조할 듯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사무국이 8일 오후 6시(현지시간)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국을 비롯해 영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출신 후보가 지원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는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접수 마감 불과 몇시간 앞두고 유럽 국가에서 후보가 나오면서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면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이 가능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명희 본부장이 25년간 통상 외길을 걸은 전문가라는 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

| | |
|--|---|
|  한국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5년간 통상전문가 |  영국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통상 전문가, 다자주의 지지자 |
|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펜조-이엘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 세계은행 전무 |  몰도바 투도르 울리아노프스키 몰도바 외무 장관 |
|  이집트 하미드 맘두 외교관 출신 변호사 전 WTO 관리 |  멕시코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고위통상 관료 |
|  케냐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 케냐 문화부 장관 |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마지야드 알투와이즈리 사우디 전 경제·기획부 장관 금융전문가 |

/연합뉴스

염증(코로나19) 사태 진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은 점도 집중 부각할 수 있다.

아프리카 출신 후보 중에서는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펜조 이엘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오펜조 이엘라 의장은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역임했고, 세계은행 전무는 맡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은 인물이다. 최근 코로

나19 사태에서 Gavi를 이끌면서 WTO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그동안 아프리카 출신 WTO 사무총장이 없었다는 점과 여성이 이 기구에서 최고직위에 오른 적도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집트 외교관 출신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도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하미

드 맘두는 전직 WTO 관리 출신으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아mina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도 케냐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프리카 출신 후보다. 아프리카 국가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은 단일 후보를 내 WTO에서 목소리를 높여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지만, 결국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선진국 입장을 대표하는 유럽 출신 후보들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영국 테레사 메이 전 총리가 이끌던 내각에서 국제통상부 장관을 지냈던 리엄 폭스, 몰도바 외무장관을 지낸 투도르 울리아노프스키가 출사표를 던졌다. 중·남미와 중동 지역에서도 각각 후보를 냈다.

WTO는 앞서 아제르바이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14일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새 수장 선출 작업에 돌입했다. 후보들은 오는 15~17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공식 회의에 참석해 비전을 발표하고 회원국 질문을 받는다. 유 본부장 발표 순서는 후보 접수 순서에 따라 5번째로, 이르면 1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회원국별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탈락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의 선출 과정이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韓-캄보디아 FTA 추진 산업부, 협상개시 선언

한국과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째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이 9일 15시(한국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고 이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정부간 실무협외와 공동연구 등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양측 모두 국내 절차를 완료해 이번에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의 생산·무역 허브로 성장 가능성이 큰 캄보디아와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연내 성과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35세 이하 젊은 인구가 72%를 차지해 성장 잠재력이 크다.

유 본부장은 "한-캄보디아 FTA 체결을 통해 캄보디아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양국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7월 중 첫 번째 공식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상품 시장 개방과 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추진키로 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 대면 회의 방식을 병행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째 소라삭 장관은 차기 WTO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 본부장이 그간 통상현장에서 보여준 다양한 경험과 식견,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용수 기자

유명희 "WTO 무역규범, 디지털시대 전환 대비해야"

'디지털경제통상 컨퍼런스' 참석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규범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산업부와 무역협회 공동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통상 컨퍼런스'에 참석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업 뿐 아니라 제조, 서비스 등 전통산업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통상 환경 흐름을 대비하고 디지털 통상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경제통상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이 제시한 디지털경제통상 전략은 △양자·다자 차원에서 우리 입장을 반영한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비롯해 ▲전략적 디지털 국제협력사업 추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제도 개편 ▲디지털통상 분야 전문 인력 육성 등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경제의 미래와 통상'을 주제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지능형 디지털전환'(심진보 ETRI 책임연구원), '바이오헬스산업의 디지털전환'(김광순 디앤드 대표) 등 특별강연과 주제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한용수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디지털 경제통상 컨퍼런스'에 참석해 환영사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